

# 해양스포츠 참여자의 여가태도, 촉진, 제약, 만족, 재참가 의도 간의 구조적 관계

안병욱, 권영훈\*  
한서대학교 레저해양스포츠학과

## The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Leisure Attitude, Facilitation, Constraint, Satisfaction, and Re-participate Intention among Marine Sports Participants

Byoung-Wook Ahn, Young-Hoon Kwon\*  
Department of Leisure Marine Sports, Hanseo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해양스포츠 참여자를 대상으로 여가태도, 여가촉진, 여가제약, 여가만족, 그리고 재참가 의도 간의 관계를 규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대상의 추출법은 비확률적 표본추출법 중 편의표본추출법을 사용하였으며, 연구대상자는 서울, 인천, 경기, 충청도에 거주하고 현재 해양스포츠 활동을 하고 있는 성인남녀 542명을 선정하였다. 연구방법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설문은 자기평가기입법으로 내용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지 구성의 적합도 판단을 위해 타당도와 신뢰도를 측정하였다. 내용타당도 검사는 사회체육학 전공교수 3인과 사회체육학 박사과정생 3인 등 총, 6명에게 검증받았다. 이후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집중타당성과 판별타당성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처리는 SPSS 21.0과 AMOS 18.0을 이용하여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대한 빈도분석, 연구도구의 신뢰도 분석, 확인적 요인분석, 연구변인 간의 상관관계분석과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해양스포츠 참여자의 여가태도는 여가촉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p>.05$ ). 둘째, 해양스포츠 참여자의 여가태도는 여가제약에 부(-)적인 영향을 미쳤다( $p<.05$ ). 셋째, 해양스포츠 참여자의 여가태도는 여가만족에 영향을 미쳤다( $p<.05$ ). 넷째, 해양스포츠 참여자의 여가촉진은 여가만족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p>.05$ ). 다섯째, 해양스포츠 참여자의 여가제약은 여가만족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p>.05$ ). 여섯째, 해양스포츠 참여자의 여가만족은 재참가 의도에 영향을 미쳤다( $p<.05$ ).

**Abstract** This study identified the relationship between leisure attitudes, leisure promotion, leisure drugs, leisure satisfaction, and the intention to rejoin maritime sports by the participants of this study. The researchers selected 542 adult men and women who live in Seoul and the Incheon, Gyeonggi and Chungcheong provinces, and who were currently engaged in marine sports activities. Data processing was performed using SPSS 21.0 and AMOS 18.0 for the frequency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 analysis.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leisure attitudes of marine sports participants did not affect the promotion of leisure ( $p>.05$ ). Second, the attitude towards leisure of the marine sports participants had a negative effect on using leisure pharmaceuticals ( $p<.05$ ). Third, the leisure attitudes of marine sports participants affected their leisure satisfaction ( $p<.05$ ). Fourth, the promotion of leisure activities of the marine sports participants did not affect their leisure satisfaction ( $p>.05$ ). Fifth, the leisure restrictions of marine sports participants did not affect their leisure satisfaction ( $p>.05$ ). Sixth, the leisure activities of marine sports participants affected the intention of rejoining ( $p<.05$ ).

**Keywords** : Leisure Attitude, Facilitation, Constraints, Satisfaction, Re-participate, Marine Sports Participants

이 논문은 2019년도 한서대학교 교내 연구지원사업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Corresponding Author : Young-Hoon Kwon(Hanseo Univ.)

email: marine-boy1@naver.com

Received August 30, 2019

Revised September 21, 2019

Accepted December 6, 2019

Published December 31, 2019

## 1. 서론

해양스포츠는 자연친화적 스포츠 활동으로 인하여 많은 동호회가 형성되고 있으며, 이는 여가활동과 동시에 자연환경과 동화되어 참여자들의 삶의 가치를 향상시키고 있다[1]. 최근에는 한서대학교 레저해양스포츠학과(충남 서산), 세한대 해양레저학과(전남 영암), 영산대 해양레저관광학과(경남 양산), 부경대학교 해양스포츠학과(부산 대연), 한국해양대학교 해양체육학과(부산 영도) 등 많은 대학에서 전공 교과목 및 교양스포츠 과목으로 해양스포츠를 채택하는 등, 해양스포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2, 3]. 여가시간의 증가와 국민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고급스포츠로 분류되었던 해양스포츠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해양스포츠 참여자가 증가하는 원인을 여가학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해양스포츠 참여자의 태도와, 해양스포츠 참여를 유도하는 여가촉진과 참여를 방해하는 여가제약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해양스포츠 참여 후, 참여자들의 여가만족과 재참여 의사를 분석하였다.

먼저, 여가태도(Leisure Attitude)란, Burdgel[4]에 의하면, 사람들이 여가에 대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자세 혹은 상태를 여가태도로 정의하고 있다. 즉 여가를 향유할 수 있는 시대의 사람이 여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것을 여가태도로 설명할 수 있다. 국내연구에서도 여가행동은 여가태도의 외형적 표출로서 여가태도와 여가행동은 긍정적인 관계가 있으며, 여가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정기적으로 그 활동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지고[5], 여가태도가 여가활동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인으로서 참여자의 태도를 분석하여 여가활동을 예측·분석하고 또한 관계원인을 찾아 여가에 대한 태도를 올바른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6, 7]. 여가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더불어 다양한 여가활동에 참가할 수 있는 우리들에게 여가태도는 중요한 요인이다.

둘째, 여가촉진(leisure facilitation)이란, 여가선호를 형성하거나 촉진하며 여가참여를 강화하거나 장려하는 요인들이라고 정의하였다[8]. Raymore[8]는 모든 사람들이 여가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여가활동에 참가하지 못하는 것을 제약으로만 설명하는 여가제약이론의 기본가정을 비판하면서 개인적 촉진, 대인적 촉진, 환경적 촉진으로 구성된 '여가촉진모형(Leisure Facilitators Model)'을 제시했다. Raymore[8]는 여가제약과 촉진이 서로 반대의 의미를 갖고 있으면서도 그

들이 동일 선상에 있음을 전제하여 이론을 전개해 나간다. '촉진요인'에 대한 개념은 기존에 먼저 성립되어 있던 '제약요인'들에 대한 개념에서 이론적인 연속성을 갖는다는 것이다. 즉, 제약이론에서 여가 비참여자는 제약요인이 있기 때문이고 여가 참여자는 제약요인이 없기 때문이라면, 촉진이론에서는 여가 비참여자는 촉진요인이 없기 때문이고, 여가 참여자는 촉진요인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이러한 설명을 통해서 제약과 촉진은 동일한 상황에 대한 관점의 차이로 해석될 수 있다. 즉, 제약의 제거가 곧 촉진이며, 촉진의 부족이 곧 제약이 되는 것이다. 그는 이와 같이 설명하면서도 '반드시 그렇다'라고 결론짓지는 않는다. 앞으로 보다 많은 경험적 연구들이 필요하며, 과학적이고 세밀한 분석을 통해 제약요인과 촉진요인 간의 관계를 명확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다. 더 나아가, Raymore[8]는 생태적 접근을 이용하여 여가에서도 생태학적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생태학적 접근에 따르면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여가와 관련된 환경요인이 개인의 여가에 영향을 미치고, 동시에 여가 제약 요인과 여가촉진 요인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즉, 한 개인의 여가 참여는 개인적, 대인적, 구조적 제약과 촉진이 상호작용한 결과라는 것이다.

셋째, 여가제약(Leisure Constraint)은 여가참여에 제약을 주는 복합한 요인을 규정짓고 여가참여, 동기부여, 만족 등과 여가활동 참여의 사회·심리적 현상과의 관계가 있다고 설명하였다[9]. 또한 구창모[10]는 여가제약이 여가활동을 선택하고 참여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여가활동의 불참보다는 변형된 여가참여형태를 낳기 때문에 여가제약에 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는 다양한 여가활동의 참여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제약 요인으로는 접근성, 관심, 개인의 건강, 두려움, 재정적 문제, 참여시간, 정보의 부족, 파트너의 부재 등이 있다. 제약 요인은 다른 여가활동으로 전이될 가장 큰 기능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11].

마지막으로 해양스포츠 활동 후에 참여자가 경험하는 여가만족(Leisure Satisfaction)은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여가만족에 관한 연구는 체육 및 스포츠학 뿐만 아니라 다양한 학계에서도 연구되고 있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여가만족이란, 특정 여가활동에 참여하면서 느끼는 개개인의 즐거움 또는 만족감으로서 여가활동을 선택, 참가, 재참여 그리고 중단을 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12].

본 연구는 해양스포츠 참여자들의 여가태도가 여가촉진과 여가제약, 여가만족에 미치는 영향과 재참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구조적 관계를 검증하고자 한다. 여가시간의 증가로 인하여 해양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해양스포츠에 지속적으로 참가 및 증가하는 그 원인과, 해양스포츠에 참여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촉진요인, 제약요인, 만족, 그리고 재참가 요인을 분석하여 해양스포츠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과 해양스포츠의 저변확대를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는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 1.1 연구가설

해양스포츠 참여자에 대한 여가참여, 만족에 관한 연구[1, 2, 45]들과 스포츠 활동에 대한 여가태도, 제약, 촉진에 관한 연구들을[7, 11] 토대로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첫째, 해양스포츠 참여자의 여가태도는 여가촉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둘째, 해양스포츠 참여자의 여가태도는 여가제약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셋째, 해양스포츠 참여자의 여가태도는 여가만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넷째, 해양스포츠 참여자의 여가촉진은 여가만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다섯째, 해양스포츠 참여자의 여가제약은 여가만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여섯째, 해양스포츠 참여자의 여가만족은 재참가 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2. 연구방법

###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19년 4월부터 8월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서울, 인천, 경기, 충청도에 거주하고 현재 해양스포츠 활동을 하고 있는 성인남녀 542명을 선정하였다. 연구대상의 추출법은 비확률적 표본 추출법 중 편의표본 추출법을 사용하였다. 설문은 자기평가기입법으로 내용에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총 60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고 이 중 불성실하게 응답하였거나 이중응답 등 본 연구에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설문지를 제외한 542명의 자료가 실제분석에 사용되었다.

Table 1. Characteristics of simulation marine sports participants

Concepts		N	%
Gender	Male	347	64.1
	Female	195	35.9
Live	Seoul	129	23.8
	Inchon	142	26.2
	Kyonggi	158	29.2
	Chungcheong	113	20.8
Marine Sports	Water ski	92	17.0
	Yacht	80	14.8
	Skinscuba	107	19.7
	Windsurfing	103	19.0
	Jet ski	88	16.2
	Dinghy yacht	72	13.3
Total		542	100

### 2.2 측정도구

#### 2.2.1 설문지구성

Table 2. Summary of the Scales Used

Scale	Item	Number of Question
Characteristics	Gender, Live, Marine Sports	3
Leisure attitude	Cognitive(6)	18
	Emotional(6)	
	Behavior(6)	
Leisure facilitation	Personal(5)	15
	Interpersonal(5)	
	Structural(5)	
Leisure constraint	Level(7)	22
	Facility(2)	
	Time(3)	
	Courage(3)	
	Environment(2)	
	Recognition(3)	
Leisure satisfaction	Self-improvement(3)	17
	Stress solution(4)	
	Promotion of health(3)	
	Technical development(4)	
	Interpersonal relation(3)	
Re-participate intention	Re-participate(5)	5
Total		80

#### 2.2.2 조사도구

설문지 구성 중 여가태도 척도는 Regheb & Beard[13]가 개발한 여가태도척도를 바탕으로 이문진[14]이 사용한 설문 문항을 사용하였다. 여가촉진 척도는 Raymore[8]의 Facilitators to leisure 연구를 김용수, 이훈[15]이 사용한 문항을 본 연구의 목적과 적합하게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여가제약 척도는

Table 3.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hi^2$	$\chi^2/df$	TLI	CFI	RMSEA	Cronbach' $\alpha$
Leisure attitude	137.711	2.994	.961	.973	.061	.905
Leisure facilitation	165.731	2.402	.950	.967	.051	.853
Leisure constraint	450.155	2.981	.932	.956	.061	.867
Leisure satisfaction	248.809	2.734	.958	.972	.057	.935
Re-participate intention	-	-	-	-	-	.879

<sup>a)</sup> saturated model

Crawford & Godbey[16]가 제시한 척도를 바탕으로 이철원과 지현진[17]이 개발한 보편적 여가계약척도를 본 연구의 목적과 적합하도록 수정·보안하여 사용하였다. 여가만족 척도는 안병욱[12]의 한국형 여가만족 측정도구를 개발한 설문 문항을 사용하였다. 재참가 의도 척도는 배향남[18], 최영진[19] 등에서 사용된 설문문항을 바탕으로 박선희[20]가 사용한 설문문항을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각 연구 변인은 모두 5점 리커드 척도로 사용하였다.

### 2.3 설문지의 신뢰도 및 타당도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지 구성의 적합도 판단을 위해 타당도와 신뢰도를 측정하였다. 내용타당도 검사는 사회체육학 전공교수 3인과 사회체육학 박사과정생 3인 등 총, 6명에게 검증받았다. 이후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집중타당성과 판별타당성을 검증하였다. 여러 가지 적합지수 중 Bentler[21]가 제시한 CFI, Bentler & Bonett[22]이 제시한 TLI와 Jorekog와 Sorbom[23]이 제시한 GFI, Steiger & Lind[24]가 제시한 RMSEA를 적합도 지수로 적용하였다. 한편 CFI와 TLI, GFI의 경우 .8-.9 이상, RMSEA의 경우 .09 이하가 된다면 적합한 모형이라 할 수 있다[25].

본 연구 변인인 여가태도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TLI .961, CFI .973, RMSEA .061로 나타났고, 여가촉진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TLI .950, CFI .967, RMSEA .051로 나타났다. 여가제약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TLI .932, CFI .956, RMSEA .061로 나타났고, 여가만족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TLI .958, CFI .972, RMSEA .057로 나타나 모형의 적합도 기준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개념 신뢰도와 분산추출지수 값이 모두 .7과 .5를 모두 상회하고 있어 집중타당도 역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다[26]. 또한 신뢰성 분석을 위해 Cronbach's  $\alpha$ 계수를 검증한 결과 모두 .7 이상으로 측정도구로써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분석결과는 [Table 3]과 같다.

### 2.4 자료처리

본 연구의 자료처리는 Window용 SPSS 21.0을 이용하여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대한 빈도분석, 연구도구의 신뢰도분석, 연구변인 간의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AMOS 18.0을 이용하여 연구 도구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후, 여가태도, 여가촉진, 여가제약, 여가만족, 그리고

재참가 의도 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한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 3. 연구결과

### 3.1 각 요인간의 상관관계

변수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한 결과는 [Table 4]와 같이 나타났다. 대부분의 변인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모든 상관계수의 값이 .8을 초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중공선성 문제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Table 4. Correlation Analysis

	1	2	3	4	5
Leisure attitude	1				
Leisure facilitation	.000	1			
Leisure constraint	-.094*	.059	1		
Leisure satisfaction	.092	.143*	.146*	1	
Re-participate intention	.501***	-.001	-.154*	.485***	1

\*p<.05, \*\*p<.01, \*\*\*p<.001

### 3.2 연구모형의 적합도 검증

본 연구의 모형적합도 결과는 [Table 5]에 제시된 바와 같이 CFI=.940, TLI=.932, RMSEA=.052으로 나타나 모든 적합지수를 만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5. Goodness of fit index of the measurement model

	$\chi^2$	df	CFI	TLI	RMSEA
Model Fit Index	585.083	243	.940	.932	.052

### 3.3 구조방정식 분석 결과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한 결과는 [Fig. 1]과 [Table 6]에 제시된 바와 같다. 가설 1인 여가태도는 여가촉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beta=.011$ ,  $t=.510$ ,  $p>.05$ ). 가설 2인 여가태도는 여가제약에 부(-)적인 영향을 미쳤다( $\beta=-.096$ ,  $t=-1.996$ ,  $p<.05$ ). 가설 3인 여가태도는 여가만족에 영향을 미쳤다( $\beta=.175$ ,  $t=1.683$ ,  $p<.05$ ). 가설 4인 여가촉진은 여가만족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beta=-.113$ ,  $t=-.153$ ,  $p>.05$ ). 가설 5인 여가제약은 여가만족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beta=.027$ ,  $t=.587$ ,  $p>.05$ ). 가설 6인 여가만족은 재참가 의도에 영향을 미쳤다( $\beta=.116$ ,  $t=2.106$ ,  $p<.0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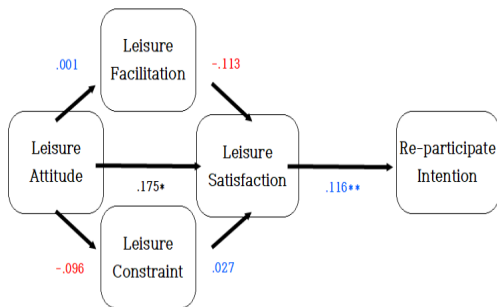


Fig. 1. Results of proposed model measurement

## 4. 논 의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해양스포츠 참여자의 여가태도는 여가촉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여가활동 참여 액티브

시니어의 여가촉진과 여가태도 간의 관계를 분석한 최현옥, 이민석[27]의 연구결과와 노인의 여가를 촉진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여가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한 전영숙[28]의 연구결과와 상반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본 연구대상의 연령(20-30세)이 최현옥, 이민석[27]과 전영숙[28]의 연구대상 연령(60-70세)과 다름에 기인한다고 판단된다. 해양스포츠의 특성상 타 종목에 비하여 활동적이고 수영을 기본으로 하는 종목이 많아 20-30대의 분포가 높으며, 연령층에 따라 여가에 대한 인식이 다를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29] 보도 자료에 따르면 15-19세 및 20대의 거의 절반 정도가 '개인의 즐거움을 위해' 여가활동을 하고 있으며, 연령대가 낮을수록 '스트레스 해소'의 목적으로, 연령대가 높을수록 '건강'을 위해 여가활동을 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 대상의 연령층에 따라 여가에 대한 태도와 인식, 활동방법,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여가태도가 여가촉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다고 사료된다.

둘째, 해양스포츠 참여자의 여가태도는 여가제약에 부(-)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는 여가제약이 여가태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황선환[30]의 연구결과와 배드민턴 동호인의 여가태도가 여가제약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결과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남영균[31]의 연구결과가 일치하고 있어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하였다. 이는 여가제약의 하위요인이 많을수록 여가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여가제약은 서론에서 정의된 바와 같이 여가 참가를 방해하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구창모[10]의 연구에 따르면 여가제약이 여가활동을 선택하고 참여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Raymoe[8]의 연구에 따르면 여가제약과 여가촉진이 서로 반대의 의미를 갖고 있으면서도 그 둘이 동일 선상에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해양스포츠라는 여가의 특성상 제약의 하위요인인 날씨, 접근성, 안전성, 사망률, 국민인식 등과 같은 여가제약이 부(-)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사료된다.

Table 6. Results of Structural Equating Modeling Analysis

	Path	Estimate	S.E.	t-value	
H <sub>1</sub>	Attitude → Facilitation	.011	.021	.510	Reject
H <sub>2</sub>	Attitude → Constraint	-.096	.048	-1.996*	Accept
H <sub>3</sub>	Attitude → Satisfaction	.175	.044	1.683*	Accept
H <sub>4</sub>	Facilitation → Satisfaction	-.113	.098	-.153	Reject
H <sub>5</sub>	Constraint → Satisfaction	.027	.046	.587	Reject
H <sub>6</sub>	Satisfaction → Re-participate intention	.116	.055	2.106**	Accept

\*p<.01, \*\*p<.01

셋째, 해양스포츠 참여자의 여가태도는 여가만족에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는 여가태도와 여가만족도 간 영향관계를 밝힌 최길례[32]와 임번장[33]의 연구와도 일맥상통하는 것이며, 대학생의 여가태도와 여가만족에 대하여 연구한 이력정[34]의 연구결과와도 일치되는 분석결과이다. 또한 생활체육과 같은 건전하고 적절한 스포츠 활동을 통해 각박한 사회에서의 대인관계 개선과 유지, 스트레스 해소, 여가생활의 활성화를 꾀할 수 있다는 이상덕·최천진[35]의 연구 및 스포츠 활동을 통해 강한 연대의식과 우애, 친밀감과 친교의 감정을 유발시킨다는 임번장[36]의 주장과도 일치되는 분석결과이다. 또한, 강영룡[37]의 연구에 따르면 해양스포츠 참여는 실기능력향상 즉 기술발달을 가져왔으며, 그로 인해 성취욕 등을 충족시킴으로써 경험하는 즐거움을 가져왔기 때문이라고 분석하여 본 연구결과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따라서 이는 해양스포츠가 참가자들로 하여금 여가로서 스트레스 해소, 기술발달, 즐거움 등 충분한 만족감을 전달했기 때문에 영향을 미쳤다고 사료된다.

넷째, 해양스포츠 참여자의 여가촉진은 여가만족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장현승, 이근모[38]의 연구에서 해양스포츠 참여자의 하위문화에 대한 조사 중 자연과의 일체감이 중요한 만족감 요소라고 지적하고 있으며, 임진선, 조경태, 강형길[39]에 따르면 자연과의 일체감을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과 이를 보다 원활히 이끌 수 있는 여가촉진 요소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현재 국내 해양스포츠는 대부분 단순 체험에 머물러 있어 참여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체험을 통한 만족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기존 해양스포츠 체험의 목적이 단순체험, 기술습득, 능력향상에 머물러 있어, 경관감상, 힐링, 여유를 찾을 수 있는 감성적 여가촉진의 부족으로 여가만족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사료된다.

다섯째, 해양스포츠 참여자의 여가제약은 여가만족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김미숙[40]의 연구에서는 여가스포츠 참여 제약요인에 대하여 분석하였으며 분석 결과 제약이 높으면 참여가 줄어든다고 하였으며, 황인옥 외[41]의 연구에서는 여가제약이 참여 동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따라서 참여에 대한 제약이 높을수록 동기는 감소하여 부적 인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으나, 여가제약이 여가만족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 및 근거는 찾을 수 없었다. 여가제약은 여가활동을 선택하고 참여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만 여가만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여섯째, 해양스포츠 참여자의 여가만족은 재참가 의도에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는 손선미[42]와 최성범, 박승환[43]은 스포츠 체험이 후속 행동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데, 후속 행동은 재 방문의도와 추천의도로 설정하여 본 연구 결과를 지지해 주고 있다. Kao, Huang & Wu[44]의 연구에서도 체험 수준이 높을수록 만족하게 되며, 재방문을 통하게 된다고 하였으며, 권영훈[45]은 해양스포츠 참여자들이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체험에 동기화되어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면 지속적인 해양스포츠 활동은 물론 생활만족을 통한 구천의도를 상승시킬 수 있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주장하며 본 연구 결과와 같은 결론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해양스포츠 참여자의 체험을 통한 여가만족은 선택행동 즉 재참가 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해양스포츠 참여자를 대상으로 여가태도, 여가촉진, 여가제약, 여가만족 그리고 재참가 의도 간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연구대상자는 서울, 인천, 경기, 충청도에 거주하고 현재 해양스포츠 활동을 하고 있는 성인남녀 542명을 선정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처리는 SPSS 21.0과 AMOS 18.0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신뢰도 분석, 확인적 요인분석, 상관관계분석과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해양스포츠 참여자의 여가태도는 여가촉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둘째, 해양스포츠 참여자의 여가태도는 여가제약에 부(-)적인 영향을 미쳤다. 셋째, 해양스포츠 참여자의 여가태도는 여가만족에 영향을 미쳤다. 넷째, 해양스포츠 참여자의 여가촉진은 여가만족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다섯째, 해양스포츠 참여자의 여가제약은 여가만족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여섯째, 해양스포츠 참여자의 여가만족은 재참가 의도에 영향을 미쳤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연구도구는 여가만족 척도를 제외하고 외국에서 개발된 설문도구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정서와 문화에 적합한 설문도구 개발이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의 대상자는 서울, 인천, 경기, 충청도로 한정하였다. 따라서 전국의 해양스포츠 참여자에게 확대 해석하기에 다소 무리가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전국으로 확대하여 연구를 한다면, 보다 정확한 연구결과를 도출할 수 있

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설문도구를 이용한 양적연구로 진행하였다. 설문도구로 밝힐 수 없는 요인들을 질적 연구를 이용한다면, 새로운 요인들을 밝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References

- [1] J. M. Im, "Study on relation between water leisure sports participants' leisure motivation and leisure commitment, leisure satisfaction, and mental well-being." *Korean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Vol. 53, No. 6, pp. 417-429, 2014.  
DOI : <https://doi.org/10.23949/kjpe.2017.01.56.1.36>
- [2] S. B. Son, B. L. Kim, "An Examination of Model among Exercise Emotion, Flow and Continuous Behavior of Participate in Water-sports." *Korean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Vol. 51 No. 3, pp. 285-294. 2012
- [3] Y. S. Jung, "Relationship among Sports Fun, Classes Satisfaction, and Exercise Adherence Intention of University Students in Water Sports." *Journal of Sport and Leisure Studies*, Vol. 60, pp. 317-326, 2015
- [4] R. Burdge, The Development of a Leisure Orientation Scale. Unpublished Master's Thesis, Ohio State University. 1961.
- [5] J. Y. Ha, "The Difference of Leisure Functioning, Leisure Attitude, and Leisure Boredom as Perceived by Korearn Housewives and Working Wives." *Journal of Sport and Leisure Studies*, Vol. 6, pp. 155-166, 1996
- [6] K. Y. Song, K. H. Y, I. J. Kim, "The Contribution Frequency of Leisure Participation to Leisure Attitude among Married Women." *Korea sport research*, Vol. 14, No. 5, pp. 135-144, 2003.  
DOI : <https://doi.org/10.1080/00222216.2008.11950140>
- [7] M. J. Lee, M. R. Kim, D. J. Kim, "An Examination of the Factor Structure of the Leisure Attitude Scale with Sports-Leisure Participants," *Korean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Vol. 45, No. 2, pp. 77-86, 2006.
- [8] L. A. Raymore, "Facilitators to leisure." *Journal of Leisure Research*, Vol. 34, No. 1, pp. 37-51, 2002.
- [9] E. L. Jackson, "Variation in the desire to begin a leisure activity: Evidence of antecedent constraints." *Journal of Leisure Research*, Vol. 22, pp. 55-70, 1990.
- [10] C. M. Gu, "Research Trends of Leisure Pharmaceuticals." *Korean Journal of Sociology of Sport*, Vol. 11, pp. 2-6, 1995.
- [11] B. W. Ahn, "The Influence of Participant Motivation & Constraint factor on Life-Satisfaction among Paragliding Participants." *Journal of Leisure and Recreation Studies*, Vol. 33 No. 1, pp. 77-87, 2009
- [12] B. W. Ahn, "The development of leisure satisfaction scale for Korean adults." Ph.D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2009.
- [13] M. G. Ragheb & J. G. Beard, "Measuring leisure attitude." *Journal of Leisure Research*, Vol. 14, No. 2, pp. 155-167, 1982.
- [14] M. J. Lee, "Recreation Specialization Scale Development."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Physical Education. 2006.
- [15] Y. S. Kim, H. Lee, "A Study of Developing The 'Leisure Participation Condition Type' for Integrating Leisure Constraints and Facilitators." *The Tourism Sciences Society of Korea*, Vol. 23 No. 2 pp. 261-277, 2011.
- [16] D.W. Crawford, & D. Godbey, "Re- conceptualizing Barriers to Family Leisure." *Leisure Sciences*, Vol. 9, pp. 119-127, 1987.
- [17] C. Lee, H. Ji, "Developing a context-free leisure constraint scale." *Korean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Vol. 42, No. 5, pp. 441-449, 2003.
- [18] H. N. Bae, "A study of relationship between service quality and customer satisfaction in ward inhabitants' sport centers." Master's thesis, Sung Kyun Kwan University, 2003.
- [19] Y. J. Choi, "The relationship of service quality of commercial sports center to the customer satisfaction and post purchase behavior." Master's thesis, Chung Ang University. 2002.
- [20] S. H. Park, "A Study on Analysis of The Tourist's Motivation.", *Korea Academe Society of Culture & Tourism*, Vol. 7, No. 2, pp. 147-162. 2005.
- [21] P. M. Bentler, "Comparative fit indices in structural models." *Psychological Bulletin*, Vol. 107, pp. 238-246, 1990.
- [22] P. M. Bentler and D. G. Bonett, "Significance tests and goodness of fit in the analysis of covariance structures." *Psychological Bulletin*, Vol. 88, No. 3, pp. 588-606, 1980.
- [23] K. G. Jorekog and D. Sorbom, "A guide to program and applications." SPSS Publications, Chicago. 1989.
- [24] J. H. Steiger, and J. C. Lind, "Statistically- based tests for the number of common factors."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Spring Meeting of the Psychometric Society. Iowa City, 1980.
- [25] S. Hong, "The criteria for selecting appropriate fit indices in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d their rationales."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Vol. 19, No. 1, pp. 161-177, 2000.
- [26] J. F. Hair, W. C. Black, B. J. Babin and R. E. Anderson, "Multivariate data analysis(7th ed.)."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2006.
- [27] H. U. Choi, M. S. Lee, "The Relationship among Leisure Facilitators, Leisure Attitude and Leisure Constraint Negotiation for Active Seniors." *Journal of leisure and recreation studies*, Vol. 42, No. 4, pp. 13-24, 2018.

- DOI : <https://doi.org/10.26446/kilrp.2018.12.42.4.13>
- [28] Y. S. Jun, "The Study on Effect of a Leisure Education Program on a Leisure Attitude and Perceived Leisure Competence." *Korean Academy Of Clinical Social Work*, Vol. 5 No. 1, pp. 137-150, 2008.
- [29]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National leisure activity survey." 2015.
- [30] S. H. Hwang, "The Effects of Factors for Choosing Sports Media as a Leisure Activity of College Students on Internet Sports Consumption." *The Korea Contents Society*, Vol. 8, No. 3, pp. 244-251, 2008.
- [31] Y. K. Nam, "The Relationship between Leisure Socialization and Leisure Constraints Based on the Degree of Participation in Badminton Club Members." Master's thesis, Inha University, 2008.
- [32] G. L. Choi, "A Study on Relationships between Types of Leisure Activity and Leisure Motivation." *Journal of Sport and Leisure Studies*, Vol. 0, No. 26, pp. 497-507, 2006.
- [33]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Survey on the Actual Conditions of National Leisure Activities." 1995.
- [34] R. J. Lee, "The Study on the Relations in between the Leisure Activity, Leisure Satisfaction and Life Satisfaction of College Student." *Hanyang Tourism Research Institute*, Vol. 22, No. 2, pp. 155-178. 2010.
- [35] S. D. Lee, C. J. Choi,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otivation of Adult Women's Participation in Lifetime Sports and the Satisfaction of Living." *Journal of Sport and Leisure Studies*, Vol. 20, No. 2, pp. 671-684. 2003.
- [36] B. J. Lim, H. S. Kim, "The Relationship Between Types of Leisure Activity and Leisure Satisfaction Among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Vol. 35, No. 4, pp. 4480-4491. 1996.
- [37] Y. R. Kang, "Relationship between Marine Sports Participants' Experiences and Participation Motive on the Satisfaction with University Life." Master's thesis, Hanseo University. 2015.
- [38] S. H. Jang, K. M. Lee, "The Characteristics of the Sub-culture of Cruiser Yacht Club Member: Focused on the Characteristics and Identity of Members." *Korean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Vol. 49, No. 6, pp. 35-50. 2010.  
DOI : <https://doi.org/10.22173/jkss.2010.23.2.117>
- [39] J. S. Lim, G. T. Cho, H. K. Kang, "Leisure Facilitators' Influence on Yacht Sailers' Leisure Experience Realms." *Journal of leisure and recreation studies*, Vol. 39, No. 1, pp. 34-43. 2015.
- [40] M. S. Kim, "The Constraining Factors Affecting Juveniles' Leisure Sport Participation." *Journal of leisure and recreation studies*, Vol. 23, No. 12, pp. 17-27. 2002.
- [41] R. U. Huang, "The Effects of Leisure Constraints and Motivations on Local Festival/Event Participation: In Case of the Chuncheon City Residents." *Korea Hospitality and Tourism Academe*, Vol. 15, No. 4, pp. 163-176. 2006.
- [42] S. M. Son, "Influence of experience factors on overall satisfaction and future behavioral intention by Sports event audiences." *Academic Society of Event & Convention*, Vol. 6, No. 2, pp. 61-75, 2010.
- [43] S. B. Choi, S. H. Park, "The study of relationship between Leisure involvement, satisfaction and continuous participation of Leisure sports participants based on the Leisure motivation." *Korea Society of Leisure, Recreation*, Vol. 34, No. 3, pp. 127-140. 2010.
- [44] Y. F. Kao, L. S. Huang, & C. H. Wu, "Effects of theatrical elements on experiential quality and loyalty intentions for theme parks. Asia Pacific." *Journal of Tourism Research*, Vol. 13, No. 2, pp. 163-174, 2008.
- [45] Y. H. Kwon, "Relationship between marine Sports Participants' Experiences, Life Satisfaction and Decision Behavior." Master's thesis, Hanseo University. 2014.

안 병 옥(Byoung-Wook Ahn)

[정회원]



- 2005년 8월 :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체육학과 (사회체육학석사)
- 2009년 8월 :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체육학과 (사회체육학박사)
- 2014년 3월 ~ 현재 : 한서대학교 레저해양스포츠학과 교수

<관심분야>

여가사회학, 여가학연구법, 레저스포츠

권 영 훈(Young-Hoon Kwon)

[정회원]



- 2014년 8월 : 한서대학교 정보산업대학원 해양스포츠학과 (석사)
- 2019년 2월 : 군산대학교 일반대학원 체육학 (박사)
- 2014년 9월 ~ 현재 : 한서대학교 레저해양스포츠학과 겸임교수

<관심분야>

해양스포츠, 마리나산업, 해양정책